

【 2015.06.27(토) 강원일보 】



◇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이·취임식이 2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오인철 신임 회장과 정동기 이임 회장을 비롯한 김정삼 행정부지사, 황영철 김진태 국회의원 등 참석 인사들이 축하띠를 자르고 있다. 박승선기자 lyano@

“회원사 수주 확대에 최선 다할 것”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2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오인철 도회장과 정동기 전 도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삼 도 행정부지사, 황영철(홍천)·김진태(춘천) 국회의원, 정재용·신도연·신영재·유정선 도의원, 노승락 홍천군수, 허남진 홍천군의장, 정해룡 강원지방경찰청장, 한윤자 강원지방조달청장, 이봉찬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신두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보호방안을 마련해 도내 수주물량 증가 및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위윤기자

【 2015.06.27(토) 강원도민일보 】

20대 정동기 회장, 제21대 오인철 회장 이·취임

2015. 6. 26. 11:00

춘천베어스호텔



▲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이·취임식이 26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오인철(사진 오른쪽) 신임 회장과 정동기 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취임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 제21대 회장이 26일 취임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이날 오전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건설협회 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오 회장은 취임사에서 “계속되는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지만 도민, 건설업 관계자 등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20대 회장을 지낸 정동기 전 회장은 “임기 동안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지역 업체 우대 명시 등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일반회원으로 백의중군해 지역 건설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성준